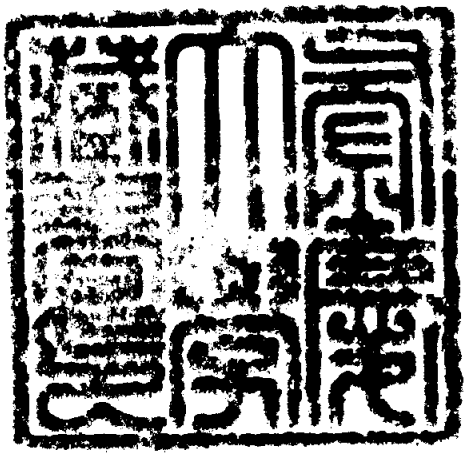
教育學碩士學位論文

복합동사「~出す」의 고찰

指導敎授 孫 東 周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8月

釜慶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柳 坍 溱

柳坍溱의 敎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6月

主 審 朴 榮 淑 (印)

委 員 孫 東 周 (印)

委 員 崔 建 植 (印)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Ⅱ. 본　론 5

1. 복합동사의 정의 3

2. 복합동사의 선행연구 6
2.1 복합동사의 구성과 특색 6
2.1.1 복합동사의 결합요소의 품사에 의한 분류 6
2.1.2 복합동사의 복합빈도에 의한 분류 7
21.3 V1-V2형 복합동사의 분류 연구 9
2.1.4 V1-V2형 복합동사의 의미와 구조 17
2.1.5 V2 위치의 주요동사 22

3. 복합동사「～出す」의 의미분석 27
3.1 「～出す」의 의미 및 선행연구 27
3.2 복합동사「～出す」의 의미분류 29
3.3개시를 나타내는「～出す」와 「～始める」의 비교 56
3.3.1「～出す」「～始める」형과 결합하는 전항동사에 대해서 57

Ⅲ. 결　론 69

참고문헌 72

A Study on compound verbs 「~Dasu」

Mook-Jin Ry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mentioned above, we thought about Japanese's the compound verb, especially the meaning of the compound verb which is combined with 「dasu」 from the point of the meaning of the compound verb in the japanese language.

First of all, I arranged shortly the compound verb that is difficult to give a definition clearly and divided the compound verb into the union requisite's word constitution and the meaning's relationship in based of the preceding study by this time.

Based on this, I conducted researches in the compound verb 「dasu」 that is the main study's object in this study laying emphasis on that meaning.

Before anything else, I researched into the word that has the meaning classifying into when it used by itself and by the compound verb, so could know that they are connected each other.

And I refered to the preceding study to do the meaning grouping concretely.

Mrs. Himeno Shoko divided [moving to the outside, the front. the surface] into an intransitive verb that shows the subject's moving(come out creeping from a hole, come out running from a house) and a transitive verb that shows the object's moving,(carry the wood from a mountain to a house) and said that mostly it is possible to exchange 「deru」 「dasu」 because 「dasu」 loses the transitive verb's property about the intransitive and the compound verb itself becomes the intransitive verb Mrs. Himeno divided the preceding verb into the thing that has the meaning or not.

She explained that in the former case, 「dasu」 emphasizes the preceding verb's meaning, in the latter case, the preceding shows the moving's a way and an aspect by modifying 「dasu」 .

This is general study about the compound verb 「~dasu」 by this time. and in this manuscript I'm establishing this point by the examination.

And in the transitive verb, it divided into a way and a condition and a purpose and a case that analysis is impossible.
And in[let out the person] having no concern with the person concerned's will, it shows the meaning that [let out the person by force].

Because the object is focused in [let out the person] and cardinal point ,[from where]. is omitted.

She explains that for example, there is 「meshidasu」 「tsukidasu」 「karidasu」 「karidasu」 Besides, he said that the present lets the object appear to the outside or the surface, so it lets the object meet the person's eyes, and it doesn't have the object's spatial moving.

It divided into the present and discovery by the mark of the preceding verb's meaning.

Against this, in this study I thought once more that this word is suitable as expected Mrs.Himeno taking an instance 「tobidasu」, 「suidasu」 about [the thing that doesn't have the meaning of 'moving of the outside']

Because the first, I think that it is strange to argue that it has the outside verb's meaning or not in that word, against consideration's object itself is the compound verb that shows 'moving of the outside, the front, the surface' in the preceding verb, the second, tobidasu mentioned above has the movement's meaning 'go anywhere by flying up'
There is the meaning of the moving 'finally move the location anywhere creeping'.
Accordingly I think that this word is unsuitable, preferably using the word, the way of moving, the thing that shows the form is suitable.

Therefore, in this study I divided into 6 kinds of meaning, moving, expression, appearance, discovery, opening, to the side of the outside, the front, the surface breaking down meaning usage of 「~dasu」.

By this time, the meaning usage of 「~dasu」 is studied focusing on the meaning of opening mainly showing the first position in a coined word's rate of the controled the compound verb.

But I studied the there is some more various meaning expect by the preceding study and examples.

Moreover there are some words that doesn't belong the 6 kinds grouping or comes under the meaning of 2 kinds over.

This stimulates the necessity of more systematic grouping's study about 「~dasu」 by the vocabulary's compound verb.

I want to leave this by hereafter's subject.

In addition I wanted to examine a visual point of the preceding study discussed from he site of the outbreaking and the awakening, not aspect site looking around 「~dasu」 and 「~hazimeru」.

Especially, by watching for the compound verb combined, I want to set a standard for ensuring the clearness in using of 2 verbs.

Ⅰ. 서론

1. 연구목적

일본어표현에 있어서의 동사의 비율은 크다. 동사를 술어로 사용하는 문장의 비중은 크고 또 수식어로서 복문의 종속구에 사용되어지는 비율도 크다. 일본어적 발상, 사고의 대부분은 동사에 의해서 지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사는 일상의 언어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이러한 동사의 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복합동사의 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 교과서나 교재에서 배우게 되는 동사의 대부분은 단순동사이다. 학습자는 하나 하나의 단순동사의 의미・용법에는 깊이 학습을 하지만, 그들의 동사를 조합시킨 복합동사에 대해서는 학습의 기회가 그다지 없다. 따라서 동사에 관한 일본어실력이 불충분한 채로 상급레벨로 나아가 버려 압도적으로 많은 복합동사의 벽에 부딪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합동사를 잘 구사하지 못하고서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표현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복합동사를 만드는 각각의 부분, 즉 하나 하나의 단순동사가 이미 습득한 단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합쳐져서 나타내는 전체의 의미를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유추에 의해서 대충 해석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복합동사의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森田良行는 일본어 어휘 체계 가운데에서의 동사의 양적 비중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현대잡지 90종의 용어조사에서 전체 품사 중에서 동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1.4%에 이르고 있으며, 명사나 부사에 '~す

る'가 붙어서 サ변격동사화 한 것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 외국인용의 보통 초급 교과서에서 취급되고 있는 전체 어휘 가운데에서 동사는 20%에 이르며 외국인이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 동사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森田良行는 또한 일본어 동사 가운데서 복합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해서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氏의 조사에 의하면 『例解国語辞典』(時枝試記編, 中教出版, 昭和21年)의 일본어 복합동사의 수는 1,817어로서 전체 동사수의 32.39%나 점하고 있으며, 이는 평소 사용되고 있는 동사 가운데의 약 4할이 복합동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어를 학습하려 할 때, 복합동사는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초작업으로서 우선 복합동사 중에서도 기초학습의 단계에서부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그 다양한 용법에 따른 학습자의 오용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는 「~出す」의 용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이 중에서 개시의 「~出す」에 대해서는 「~始める」와의 비교를 통해 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국립국어연구소의 『복합동사자료집』(野村雅昭・石井正彦1987)중에서 '異なり語数' 432로 순위 1위에 있는 「~出す」를 대상으로 하여, 1장에서는 복합동사의 선행연구와 정의, 그리고 구성형식과 후항동사 의미의 형식화를 알아본 후, 2장에서는 문법화의 개념과 연구실태, 그리고 3장에서는 「~出す」의 의미용법과 「~出す」의 문법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開始'의 의미인 「~始める」와의 의미용법을 대조해 본다.

본고에서 사용한 예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서　　명	작　　자	출 판 사	본　고
「ダンスダンス(上)」	村上春樹外(1986)	講談社	댄스댄스
「回転木馬のデッドヒット」	村上春樹(1985)	講談社	회전목마
「遠い太鼓」	村上春樹(1990)	講談社	먼북
「N・P」	吉本バナナ(1990)	角川書店	N・P
「哀しい予感」	吉本バナナ(1998)	角川書店	예감
「うたかた」	吉本バナナ(1988)	福武書店	うたかた
「パイナップル」	吉本バナナ(1989)	角川書店	파인애플
「GO」	金城一紀(2001)	講談社	GO
「Love Letter」	岩井シュンジ(1995)	角川書店	러브레터
「アナザ ヘブン」	飯田譲治(1999)	角川ホ-ラ文庫	another heaven
「中国の鳥人」	椎名誠(1997)	新潮社版	중국
「眠り姫」	秋津知子訳(1998)	早川書房	졸린 여인
「日本語用例辞典」		大韓教科書出版	〈用例〉
「日本国語大辞典」		小学館	〈国語〉
「新明解国語辞典」		三省堂	〈明解〉
「国語辞典」		講談社	〈講国語〉

Ⅱ. 본 론

1. 복합동사의 정의

일본어의 복합동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져 있다. 하나의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말을 단순어라고 하며, 단순어와 단순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갖는 큰 단위를 복합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형태소 모두가 동사이거나 혹은 후항의 형태소가 동사로 형성된 복합어 중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동사로서의 문법적인 성질을 갖는 것을 복합동사라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복합동사는 하나의 독립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고 복합어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동사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복합동사와 협의의 복합동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광의의 복합동사는 두 개 이상의 말이 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동사적 의미를 형성한다고 하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협의의 복합동사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복합되어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 복합의 정도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 즉 후항성분(후항동사)이 보조동사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동사의 측면에서 보면 복합동사의 구성요소로서의 동사는 형태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본래의 본동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복합동사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역의 「～(さ)せる」, 수동의 조동사「～(ら)れる」와 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어「～春めく」,「～嬉しがる」의「～めく」,「～がる」와 같은 결합체가 있지만, 이것들은 본래부터 단독으로는 실질적인 동사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결합체들은 복합동사로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복합동사의 형태를 「동사+동사」형으로 한

정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2. 복합동사의 선행연구

2.1 복합동사의 구성과 특색

2.1.1 복합동사 결합요소의 품사에 의한 분류

복합동사의 결합요소로 분류한 것으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玉村文郎氏는 「和詞の結合成分」이라는 논술에서

① 동사 + 동사 (歌いまわる, 呼び集める)

② 형용사어간 + 동사 (近づく, 遠のく)

③ 명사 + 동사 (名付ける, 芽生える

④ 부사 + する (びっくりする)

⑤ 의성어·의태어 + 접미사 (ウロつく)

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2) 野村雅昭는「複合動詞のつくられかた」라는 논문에서「語基」라는 개념을 세워 복합어의 기술을 위해서 라는 전제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A類(体言流) ・・・・・ 山, 鳥, 人間, 文

B類(相言類) ・・・・・ 青(い), 貴重(な)

C類(用言類) ・・・・・ 切り(る), 相談

D類(副言類) ・・・・・ また, ふらり, 絶対

野村雅昭는 다시 복합동사의 구성형태로서

①A + C ・・・・・ Aが(ヲ, ニ, デ) Cスル <A가(을, 에,에서) C하다>

日-ざめる, 夢-見る, 耳-なれる

②B + C ・・・・・ B ノ状態デ(ニ) Cスル <B의 상태에서(에) C하다>

青- ざめる, 若-がえる, 高-なる

③C + C ・・・・・ Cシタ状態デ Cスル <C한 상태에서 C하다>

掃き-出す, 踏み-抜く, 出-迎える

등 세 종류로 상당히 흥미 있는 분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복합동사는 어느 형태이든 동사가 뒷부분에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③의 형태가 가장 많고, ①과②의 형태는 ③에 비해서 적다고 논술하고 있다.

2.1.2 복합동사의 복합빈도에 의한 분류

일본어의 복합동사를 형식면에서 고찰해 보면, 일본어 복합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대개 후항성분에 있기 때문에 전항성분에 비해 복합빈도가 높은 것이 많다.

1)전항 및 후항성분에서 복합빈도가 높은 동사의 대부분은 전항 또는 후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전항 또는 후항성분의 어느 쪽에나 올 수 있는 동사는 극히 적다. 그러나 예를 들면, 「切る」,「取る」,「立つ」 등은 전항이나 후항성분의 어느 쪽에서나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

이다.

2)전항성분에 오는 동사의 대부분은 후항성분에도 올 수 있지만 후항성분에 오는 동사 중에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전항성분에 오기 어려운 것, 즉, 후항 전용의 동사가 있다. 예를 들면 「こむ」, 「合う」, 「始める」, 「上げる」, 「上がる」, 「すぎる」, 「続ける」 등은 주로 후항성분으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동사들이다.

3)복합동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후항성분에 있기 때문에 상기 2)의 소위 후항전용동사는 그만큼 조어력이 높고 의미상의 역할도 크다 하겠다.

4)전항성분보다는 후항성분 쪽에 복합빈도가 높은 동사가 많다.

5)전항성분에 있어서 복합의 빈도가 높은 동사에는 「見る」, 「取る」, 「書く」, 「言う」 등 기본어가 많다.

6)1)~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어 복합동사를 학습할 때 「기본어동사 + 후항전용동사」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의 복합동사를 학습할 때 형식면에 관해서는 많은 복합동사를 접하지 않고도 복합의 빈도가 높은 것 수십종을 체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2.1.3 V1-V2 형 복합동사의 분류 연구

복합동사 「V1 + 出す」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V1-V2형 복합동사의

의미 구조와 이 분야의 연구자들인 森田良明(1978), 山本清隆(1984), 寺村秀夫(1984), 影山太郎(1993)의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森田良行

森田(1978)는 복합동사를 의미 관계의 시점에 따라 다음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①병렬관계

V1과 V2를 동등하게 나열하는 「~して~する」의 형식이다.

書き捨てる, 聞き置く, 切り落とす

②주어와 술어의 보충관계

V1과 V2가 각각 독립적인 뜻을 가지며 병렬관계에서 한걸음 나아간「주어-술어」의 「ガ格」,「ニ格」그리고, V2가 타동사이면 「を格」을 구성하는 것이다.

歩き慣れる(歩くことになれる)

見飽きる(見ることが飽きる)

書き誤る(書くことを誤る)

③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변화

주술관계와 보조관계를 다루는 복합동사 중에는 결합하는 어느 한쪽의 동사가 원래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書き起こす, 設き起こす(始める의 의미)

④조어성분으로의 역할

V2 그 자체가 독립된 동사로서는 이용되지는 않지만 복합어 가운데 살아남아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考えあぐねる，言いそびれる，言いならわす

⑤실질적 의미에서 형식적 의미로 변화

추상화가 발전되면 그 실질적 의미는 잃어버리고 형식화가 되어 버려서 형식적인 강조만을 나타낸다.

わめきたてる，どなり散らす，叱り飛ばす

森田는 복합동사의 존재 방법을 실질적 개념을 포함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과 추상화의 정도, V1, V2의 의미 관계, 주체와 대상이 되는 것의 성질과 의미 관계 그리고, 형식의 유무 등으로 분류하고 잇다. 위의 ③,④,⑤에 해당하는 복합동사들의 V2(書き起こす，考えあぐねる，わめきたてる)들은 그 실질적 의미의 강도가 약해진 접미어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山本清隆(1984)

山本(1984)는 복합동사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V1과 V2의 격지배가 어떠한 형태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Ⅰ類 V1과V2의 양쪽 모두 복합동사 문장 내에서의 명사에 대한 격지배에 관여하고 있다

彼がたばこを投げ捨てる

(○)彼がたばこを投げる

(○)彼がたばこを捨てる

②Ⅱ類 V1만 복합동사 문장 내에서의 명사에 대한 격지배에 관여한다.

彼が空を見上げる

(○)彼が空を見る

(×)彼が空を上げる

③Ⅲ類　V2만 복합동사 문장 내에서의 명사에 대한 격지배에 관여한다.

仕事が打ち重なる

(×)仕事が打つ

(○)仕事が重なる

④Ⅳ類　V1과 V2의 양쪽 모두 복합동사 문장 내에서의 명사에 대한 격지배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男が仕事を繰り返す

(×)男が仕事を繰る

(×)男が仕事を返す

즉 ①의 경우는 구성요소인 V1,V2 두 개의 동사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실질적 복합어이며 ②는 V1만 독립적인 의미를 지는 V2의 접미어화라고 할 수 있다. ③은 V2만이 실질적 의미를 보유하므로 V1이 접두사화 했다고 할 수 있으며 ④의 경우는 의미적으로 V1, V2의 두 개의 동사의 해석이 불가능한 말하자면 단순어화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寺村秀夫

寺村(1969)는 각각의 동사가 자립어로서의 의미 보유여부에 따라 복합동사의 결합유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自立V1 + 自立V2 : 각 부분이 자립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동작을 결합하여 나타낸다.(~して~する)

去り去る，　持ち上げる

②自立V1 + 附属V2 : V2가 자립어의 의미를 상실한다.

走り込む，思い切る

③附属V2 + 自立V2 : V1의 요소가 접두어화한다.

取り押さえる，打ち眺める

④附属V1 + 附属V2 : 각각의 부분이 자립어의 의미를 상실하며 하나의 단어로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とりなす，乗り出す

寺村의 분류를 보면 V1, V2 의 두 개의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CV : compound verbs 복합동사)로 생성되었을 때 이 새로운 동사(CV)가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에 원래의 V1,V2의 두 개의 동사의 각각의 의미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에서의 V2의 자립어 상실이 접미어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影山太郎

影山(1993)는 생성문법의 입장에서 복합동사의 파생과정의 차이에 착안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A類　어휘적 복합동사

구체적으로 의미를 살펴보자면 어휘적인 결합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飲み歩く」에서 그 의미로 보아 「飲む」는 술종류에 한정되어 있다.　飲み明かす / 飲み交わす / 飲み倒す / 飲み潰れる 등도 같은 경우이다.

飛び上がる，　押し開く，　飛び込む

②B類 통어적복합동사

의미적으로 제한이 없는 補文 관계로서 「A類 + B類」 순으로 결합한다. 飲み始める(飲むことをはじめる / 飲み続ける(飲むことを続ける)와 같은 경우로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払い終える(払うことを終える)

しゃべり続ける(しゃべることを続ける)

食べ過ぎる(食べることを過ぎる)

또한, 影山는 A類와 B類의 구별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1)代用形 「そうする」와의 치환 가능성의 여부

A類 × 遊び暮す → そうし暮す

B類 ○ 私が飲み始める → 彼もそうし始める

(2)サ変동사의 사용 가능 여부

A類 × 吸い取る → 吸引し取る

B類 ○ 調べ尽くす→ 調査し尽くす

(3)주어의 존경어 가능성 여부

A類 × お飲みになり歩く

B類 ○ お飲みになり始める

(4)수동형의 가능성 여부

A類 × 書かれ込む

B類 ○ 書かれ始める

(5)중복구문의 가능성 여부

A類 × 書きに書き込む

B類 ○ 鍛えに鍛え抜く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V1과 V2의 의미관계에서 살펴보면 A類에는 동작이 상태・수단(押し開ける 등), 부대상황(飲み歩く 등), 병행동작(泣き叫ぶ 등), 아스펙트(泣きやむ 등)를 나타내는 여러 복잡한 의미관계로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의미의 어휘화가 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飲み歩く」 의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그 대상이 반드시 술에 한정되어 있으며 물이나 주스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掻きむしる(○), こすりむしる(×), ちぎりむしる(×)

思い知る(○), 考え知る(×), 聞き知る(×)

A類의 복합동사에는 위의 <1>처럼 V1의 결합 가능성이 극소수의 동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부터 어느 정도의 어휘적인 결합제한은 있지만 다음 <2>와 같이 많은 수의 V1과 결합하는 것도 있다.

<2> 買い取る, 吸い取る, ぬぐい取る, 奪い取る, 切り取る

掻き込む, 吸い込む, 誘い込む, 落ち込む, 塞ぎ込む

B類에는 A類에 보여줬던 관습적으로 쓰이는 면이 없으며 V1과 V2의 관계가 명확하다.

<3> 手紙を書き終える = 手紙を書くことを終える

<4> 雨が降り始める = 雨が降ることが始める

위의 <3>,<4>처럼 補文 관계의 해석이 가능하여 B類는 어휘적 결합제한을 받지 않고 형성된다.

B類는 寺村의 V2가 자립어의 의미를 상실하는 「접속동사」와 山本의 V1만이 복합동사의 실질적 의미를 갖는 「Ⅱ類」중의 일부가 접미어적 기능이 강한 동사군 중에서 선별되어진 것이라 한다. 선별된 影山의 B類 동사 27개는 다음과 같다.

①始動 ～かける : 墜落しかける

～出す : 印刷し出す

～始める : 到着し始める

②継続 ～まくる : 演説しまくる

～続ける : 演奏し続ける

③完了 ～終える : 演奏し終える

～終わる : 到着し終わる

～尽くす : 調査し尽くす

～きる : 困惑しきる

～通す : 沈黙し通す

～抜く : 考察し抜く

④未遂 ～ そこなう : 見物しそこなう　～損じる : 印刷し損じる

～ そびれる : 見物しそびれる　～かねる : 受諾しかねる

～ 遅れる : 返事し遅れる　～忘れる : 投函し忘れ

～ 残す : 印刷し残す　～誤る : 目測し誤る

～ あぐねる : 返事しあぐねる

⑤過剰行為 ～過ぎる : 執着し過ぎる

⑥再試行 ～直す : 演奏し直す

⑦習慣 ～つける : 運転しつける

～慣れる : 運転し慣れる

～飽きる : 演奏し飽きる

⑧相互行為 ～合う : 非難し合う

⑨可能 ～ 残る : 発生し得る

즉, A類 어휘적복합동사는 V1과 V2 두 개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현을 바꿀 수 있는 병렬관계(流れ着く → 流れてから着く), 비유적관계(書き殴る→殴るように書く), 주술보충관계(有り余る→あることが余る)가 성립하고 V2의 표현 바꾸기(投げ込む→中に投げる), V1의 표현바꾸기(打ち切る→途中で切る), V1과V2 모두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落ち着く)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B類 통어적복합동사는 주술보충관계(歩き始める→歩くことを始める)와V2의 표현 바꾸기(話し合う→お互いに話す)가 성립하며, 병렬관계(食べ過ぎる↛食べ

てから過ぎる)나 비유적관계(払い終える⇒払うように終える) 그리고, V1과 V2 모두 다른 표현으로 바꾸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2.1.4 V1 - V2형 복합동사의 의미와 구조

복합동사는 동사와 동사가 결합되는 것이지만 그 결합 방법과 생성되는 동사의 새로운 의미와 용법은 단순하지 않다. '書き置く'와 같이 전항 요소인 '聞く'의 '듣다'라는 의미와 후항요소인 '置く'의 '두다'라는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연결하여 '들어두다'라고 해서 원래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어 알기 쉬운 것이 있는가 하면 '書き起こす'와 같이 전항요소의 의미는 그대로 쓰이지만 후항요소인 '起こす'가 원래의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닌 '始める'의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과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져서 복잡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있고 또 '落ち着く'처럼 원래의 전항요소와 후항요소인 '落ちる'와 '着く'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복합동사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 최소 2개의 실질적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법기능과 의미를 갖는 단위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복합어라고 한다. 따라서 그 실질적 형태소 2개가 모두 동사이거나 혹은 후항의 형태소가 동사로 형성된 복합어가 하나의 동사로서 문법적 성질을 갖는 것을 복합동사라고 한다."[1]

즉, 복합동사는 2개의 실질적 형태소인 전항동사(이후부터는 V1)와 후항동사(이후부터는 V2)로 이루어져 있으며, V1과 V2의 결합형식은 V1부분이 「消え-かける」「打ち-込む」와 같이 연용형인 경우와「開けて-おく」

1) "複合動詞 compound verbs" 『外國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シリーズ』荒川出版 pp.1

「食べて-みる」와 같은 テ형의 경우 두 가지가 있다. テ형의 복합동사에는 아스펙트에 관계하는 「～ている, ～てある, ～てしまう, ～ていく, ～てくる」가 있으며, 수여행위에 관계하는 「～てもらう, ～ていただく, ～てくれる, ～てくださる, ～てあげる, ～てやる, ～てさしあげる」와 어떤 목적을 위한 준비로서 어떤 동작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 「～ておく」, 동작을 행한 결과에 따라 여러 판단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てみる」, 그리고, 목적을 위해 어떤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てみせる」가 있다.[2)]

그런데, 복합동사는 V2가 동사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과 동사로서의 의미를 일부 또는 전부 잃어버린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V2가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V1에 여러 동사들을 취할 수 있으며 수동형과 사역형 등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복합동사의 형을 「통어적복합동사」(見慣れる, 登りきる)라고 한다. 이에 비해 동사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V1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를 제한하며 수동형이 불가능한 「어휘적복합동사」(鳴き交わす, 飲み足りる등)가 있다. 그래서, テ형 복합동사인 경우는 통어적복합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용형 복합동사인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가능하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出す」의 경우 개시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통어적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반면, '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휘적복합동사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最近、この類の小説が読まれ出した。

<6> 袋の中から本を取り出した。

<5>의 「読まれ出した」는 '팔리기 시작하다'라는 시작의 의미를 담은 통어적복합동사이며, <6>의 「取り出した」는 '집어서 꺼냈다' 라는 의미의 어휘적복합동사이다.

---

2) 益岡隆志・田窪行則 "基礎日本語文法 - 改訂版" くろしお出版 pp.17-19

또한, 복합동사 중에는「～込む, ～かかる, ～かける, ～つく, ～つける, ～かえる」처럼 V2가 동사로서의 성질을 모두 잃어버리는 즉, 접미어적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

<7> a. その話を聞いて、私は考え出した。

b. 私はその本を持ち上げた。

위 <7>에서의 먼저 b의 경우를 보면 「私はその本を持った」와 「私はその本を上げた」 두 가지 모두 원래의 「私はその本を持ち上げた」의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a의 복합동사, '考え込んだ'를 분리하여 생각해 보면 「その話を聞いて、私は考えた」가 성립하지만「その話を聞いて、私は込んだ」는 원래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V2가 동사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접미어성의 복합동사들 중 특히「～込む」의 의미 다양성에 따라 「～込む」의 접미어적인 작용의 생성여부가 있을 것이다.

"일본어교육사전(大修館書店)"에 V1과 V2의 의미관계를 다음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내고 있다.

(1)V1 이 접두화한 것

差し付ける = 付ける

(2)V1 して V2 する의 의미

巻き付ける = 巻いてつける

(3)V1 するために V2 する의 의미

飾り付ける = 飾るためにつける

(4)V1 することが/を/に V2 する

読み過ぎる = 読むことが過ぎる

(5)V2 して V1 する의 의미

読み通す = 通して読む

(6)V2가 단독 동사로 사용되지 않는 것

にらみつける = 強くにらむ

(7)V1과 V2가 일체화되어 의미분석이 불가능한 것

落ち着く

여기서 V2가 보조동사적 요소로 쓰이고 있는 것이 (4),(5),(6)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의 'V1すること が/を/に V2する'는 A類・B類의 주술보충관계인데 예를 보면 '読み過ぎる→読むことが過ぎる、流れ続ける→流れることが続ける'는 A類 어휘적복합동사이며, '読み慣れる→読むことに慣れる'는 B類의 통어적 복합동사의 주술보충관계에 해당한다. (5)의 'V2してV1する'의 의미는 A類의 병렬관계에 그리고 (6)의 'V2 가 단독 동사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A類 B類의 V2의 표현 바꾸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동사적' 혹은 '접미어적'이라고 하던 V2에서 특히 접미어적 기능이 강한 동사군 중에서 선별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影山의 B類 동사를 비롯하여 A類 동사의 접미어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類 어휘적복합동사

①V1 V2 두 개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술보충관계에 있는 것

鳴き交わす

飲み足りる

②V2의 표현 바꾸기

震え上がる(→ひどく震える)

投げ込む(→中に投げる)

B類 통어적복합동사

③V1과 V2 두 개의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술보충관계에 있는 것

働きすぎる

歩き始める

④V2의 표현 바꾸기

言いかける(→話し始める)

話し合う(→お互いに話す)

앞에서 강한 접미어성을 보여주는 影山의 B類 동사들을 본 것과 같이 후항동사들의 접미어성을 살펴보면 ①→④로 갈수록 그 성질이 강해진다고 한다.[3)]

그렇다면, V2를 살펴보면서 A類·B類의 구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

3) 姫野昌子(1999)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 ひつじ書房 pp.23

2.1.5 V2 위치의 주요동사

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동사, V1과 V2의 수는 어느 정도일까 살펴보면, 野村雅昭・石非正彦(1987)[4]에 의하면 약 2,166語이며, 결합 위치로 분류해 보면 V1으로만 오는 동사는 1,333개가 있고 V2에만 위치하는 동사는 259개, 양쪽 모두 자유로이 결합하는 동사는 574개[5]라고 한다. 다음은 그 중 V2에 위치하는 빈도수가 많은 동사 순서대로 상위 30개를 나열한 것이다.

---

4)野村雅昭・石井正彦(1987) "複合動詞資料集", 国立国語研究所報告 pp. 24,28-29, 59,121,225

5) 姫野昌子(1999)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 ひつじ書房

〔표 1〕 V2 위치의 주요 동사

1	～出す	B類	16	～返す	A類
2	～得る	B類	17	～立てる	A類
3	～始める	B類	18	～直す	B類
4	～合う	B類	19	～上がる	A類
5	～掛ける	B類	20	～取る	A類
6	～込む	A類	21	～合わる	A類
7	～切る	B類	22	～去る	A類
8	～過ぎる	B類	23	～終わる	B類
9	～続ける	B類	24	～入る	A類
10	～付ける	B類	25	～立つ	A類
11	～上げる	A類	26	～替える	A類
12	～兼ねる	B類	27	～抜く	B類
13	～掛かる	B類	28	～通す	B類
14	～尽くす	B類	29	～出る	A類
15	～付く	A類	30	～返る	A類

위의 표를 살펴보면 우선 A類·B類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위 10위 이내의 동사들만을 살펴보면 A類 : B類가 1 : 9로 B類가 월등히 많은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10위 이내에 B類 통어적복합동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복합동사의 후항의 위치로 주로 오는 동사들에게서 쉽게 접미어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B類 통어적복합동사 중에서 후항요소로 가장 많이 위치하는 「～出す」 동사에 주목하고 싶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통어적복합동사로서의 「～出す」 용법과 더불어 어휘적복합동사의 「～出す」의 다양한 용법에 좀 더 주목하고 싶다.

복합동사의 V2로서 잘 쓰이는 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중요한 V2의 의미상 분류를 해 보면 (1)방향, (2)강조, (3)성패, (4)아스펙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복합동사의 예를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上がる : 盛り上がる	上げる : 見上げる	落とす : 振り落とす
付く : 飛び付く	付ける : 切り付ける	込む : 飛込む
込める : 押し込める	出す : 乗り出す	出る : 申し出る
入れる : 乗り入れる	回る : 手回る	回す : 見回す
渡る : 鳴り渡る	渡す : 言い渡す	かかる : 飛びかかる
掛ける : 飛びかける	返る : 乗り換える	返す : 言い返す
合う : 投げ合う	合わせる : 行き合わせる	

(2)정도의 강조에 관계하는 것

上がる : 震え上がる	上げる : 締め上げる	付ける : 叱りつける
込む : 老い込む	入る : 恥じ入る	返る : 静まり返る
果てる : 弱り果てる	立つ : 勇み立つ	立てる : 騒ぎ立てる
切る : 疲れ切る	抜く : 困り抜く	尽くす : 焼き尽くす
まくる : 書きまくる		

(3)어떤 것의 성패, 과부족에 관계하는 것

誤る : 見誤る	損じる : し損じる	損う : し損う
間違う : 見間違う	違える : 見違え	落とす : 見落とす
忘れる : 見忘れる	残す: 見残す	あぐむ : 書きあぐむ
あぐねる : 書きあぐねる	そびれる : 見そびれる	渋る : 言い渋る
兼ねる : 見かねる	過ぎる : 寝過ぎる	足りる : 寝足りる

得る : 見得る

(4)아스펙트에 관한 것

上がる : し上がる	上げる : し上げる	始める : 見始める
出す : 降り出す	初める : 開け初める	掛る : 死に掛る
続ける : 見続ける	終わる : 見終わる	終える : やり終える
抜く : やり抜く	通す : やり通す	切る : 登り切る
直す : 見直す	付ける : やり付ける	慣れる : 見慣れる

위의 항목에서 '(2)정도에 관계하는 것'에서의 예 '震え上がる'가 'ひどく震える'로 '흔들리다' 라는 '震える'에 '上がる'가 결합하여 원래의 표현보다 강조된 것을 알 수 잇다. 'ひどく'라는 '심하다'라는 강조된 의미가 즉, 다시 말해서 '上がる'의 의미가 전체 복합동사의 의미는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어떤 것의 성패 과부족에 관계하는 것'에서의 예를 보면 '見誤る' 는 '그것을 보고서 미안하다는 판단을 하다'라는 의미로 '見てから誤る'로 V1과 V2의 병렬관계로 해석이 된다. '(4)아스펙트에 관한 것'에서의 '見始める' '보는 것을 시작하다'라는 것으로 V1과 V2의 주술보충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3),(4)에 속하는 것들은 보조동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1)방향성에 관계하는 것'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서 (2),(3).(4)에 속해 있는 것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1)의 '見上げる'와 (2)의 '締め上げる', (4)의 'し上げる', (1)의 '飛込む'와 (2)의 '老い込む', 그리고, (1)의 '呼び掛ける'와 '死にかける'가 그것이지만, 각각의 의미 기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1)의 '見上げる'에서의 '上げる'는 '위를 보다 또는 올려보다' 의 의미를 갖지만 (2)의 '締め上げる'에서의 '上げる'는 원래의 '上げる' 의 의미가 아

닌 전체 복합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4)의 'し上げる'에서의 '上げる'도 원래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모두 같은 '上げる'의 모양을 갖지만 각각이 복합동사 내에서의 의미 기능이 모두 다르다. 또한, (1)방향성과 (2)정도의 강조성에 '込む'가 있지만, (1)의 '飛び込む'의 '込む'는 내부이동을 나타내는 의미로 작용하며 (2)의 '老い込む'의 '込む'는 '완전히 늙다' 라는 「すっかり～する」의 강조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2)의 정도성 강조에 속하는 (2)의 '老い込む '의 '込む'동사는 보조동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1)의 '飛込む'의 경우와 (2)의 '老い込む'의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2)의 '込む'가 (1)의 '込む'에 비해 접미어성을 더 띄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표2] 는 新明解에 제시된 접미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 앞서 언급한 사전에 "접미어적으로 [接尾語的に] "라고 제시된 표제어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2] 新明解에 수록된 접미어적 기능의 동사 62개

合う	上がる	あぐねる	倦む	上げる	入る	得る
納める	かえす	返す	変える	返る	掛る	掛ける
兼ねる	来る	切る	切れる	腐る	下す	焦れる
込む	盛る	去る	敷く	過ぎる	過ごす	荒ぶ
進む	捨てる	済ます	損なう	損じる	そびれる	**出す**
立つ	立てる	違う	散らす	尽くす	付ける	通す
飛ばす	直す	慣わす	抜く	退ける	伸びる	果たす
はぐねる	始める	果てる	放す	捲る	惑う	回す
回る	漏す	侘る	煩う	渡す	渡る	

여러 동사들이 " [接尾語的に] "이라는 설명으로 용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즉 동사의 연용형에 결합하여 접미어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사전에서도 표제어로서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新明解사전에 제

시된 접미어적 기능의 동사 중 「~出す」도 다수의 용례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어론적복합동사로서 가장 많이 복합동사의 후항에 위치하는 「~込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3. 복합동사 「~出す」의 의미 분석

3.1 「出す」의 의미 및 선행연구

「出す」의 사전적 의미로는 크게 일반적인 하나의 동사로서 사용되는 의미용법과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되어 복합동사로서 사용되는 의미용법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중 복합동사로 사용되었을 때「~出す」, 즉, 「出す」가 복합동사의 후항의 요소에 결합된 경우에 한정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보통 복합동사에는 전항과 후항의 의미의 비중이 서로 비슷한 것과 전·후항 중어느 한 쪽에 의미의 비중이 더 있다라고 확실히 나누기 힘든 것, 전·후항의 동사가 접두어 또는 접미어적으로 단지 의미의 방향을 첨가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 등 세 가지 종류를 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복합동사「~出す」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 「~出す」의 의미를 네 종류의 일본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사전에서의 「出す」는 서로 중복되는 의미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독으로 사용되는 「出す」의 의미와 복합동사로 사용될 때의「~出す」의 의미로 나누어 정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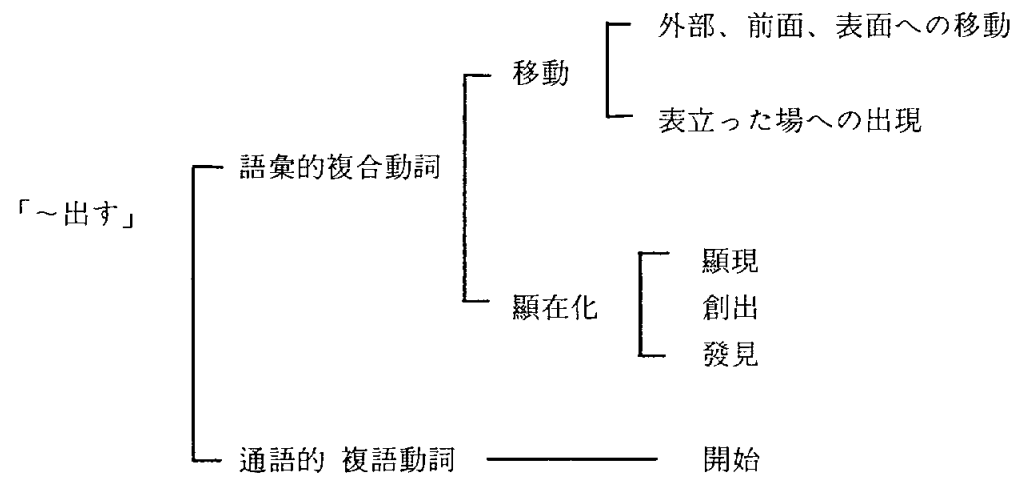
山梨正明(1995)는 「~出す」「~込む」「~入れる」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今井忍(1994)는「出る」,「出す」그리고,「~出す」의 의미를 비교

하면서, 「~出す」의 의미 중「~はじめる」와 비교 가능한 경우만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행해지고는 있지만, 「~出す」의 경우는 「~出す」의 의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좀 더 자세히「~出す」의 의미가 다양화되고 기능이 변하여, 문법화 되어 가는 부분을 「~出す」의 모든 의미에 예문을 제시하면서 알아보겠다.

먼저 「~出す」의 의미용법을 알아보면, 일본어 국어대사전에서는 크게 "手もとにあるものを外のほうへ移動させる"와"今までに見えなかったもの、なかったものなどを外に現す"로 나누고, 보조동사로서 "その動作によって表や外に現れるようにする意を表す(「染め出す」「作り出す」など。)"와"その動作を始める意を表す。"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姫野昌子(1997)는 「~出す」를 기본적의미인 「外部への移動」과 「出現や物事の顕在化を表す」어휘적복합동사와「動作や作用の開始」를 나타내는 통어적합동사로 나누고 있다.



한편 통어적복합동사인 개시를 나타내는 「~出す」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動作・作用開始を表すわけだから，結合する動詞は、'開始-継続-終了の時間的経過を有する動詞，いわゆる継続動詞といわれているものとなる。但し瞬間動詞であっても，主体が複数であったり、動作、作用が繰り返される場合には，結合することがある。"

例) 降り出す、冷え出す、泣き出す、笑い出す……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의미만을 참고하여, 「~出す」의 기본의미를 1)외부・전면・표면으로의 이동 2)표출 3) 출현 4)창출 5)발견 6)개시로 나누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의 일부를 정리하고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3.2 복합동사 「~出す」의 의미 분류

1)외부・전면・표면으로의 이동

가. 이동의 정의

이동이란 옮기다란 말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 한 곳에 있던 물체를 다른 곳에 있게 한다거나 추상적인 대상이 자리를 바꾸거나 그 형식을 바꾸는 경우에도 쓰이며, 한 곳에 있던 물체를 움직여 다른 곳에 있게 하거나,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되며, 주로 비교적 큰 힘을 들여야 하는 대상에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회사를 옮기다(*이동하다)./말을 실천에 옮기다(*이

동하다)./모기가 뇌염을 옮기다(*이동하다). 책상을 사무실로 이동하다. / 중대 병력이 전방으로 이동하다(*옮기다) 등이다.

그러면, 상기에 분류되어 있는 외부・전면・표면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일본어 복합동사 ~出す의 단어들이 가지는 이동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하여 나누고 용례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나. 동사 결합에 의한 성질 변화

(1)자・타동사의 결합의 제한여부

단어	전・후항 결합 여부		단 어	전・후항 결합 여부	
	전항동사	후항동사		전항동사	후항동사
いび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突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いぶ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つつ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いぶ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摘ま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えぐ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積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選び出す	타동사	타동사	釣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請け出す	타동사	타동사	連れ出す	타동사	타동사
売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溶か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追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取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送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流れ出す	자동사	타동사
押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投げ出す	타동사	타동사
おっぽ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にじ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誘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盗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掻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乗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掻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抜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貸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吐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担ぎ出す	타동사	타동사	掃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借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運び出す	타동사	타동사
切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弾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刳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引きず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蹴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引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漕ぎ出す	타동사	타동사	引っ張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差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拾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誘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吹き出す	자동사	타동사

さらけ出す	타동사	타동사	踏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さら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振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急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放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締め出す	타동사	타동사	ほじく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汲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挟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繰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払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吸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彫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透か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ほっぽ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救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導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掬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持ち出す	타동사	타동사
絞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も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叩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漏れ出す	자동사	타동사
たぐ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呼び出す	타동사	타동사
助け出す	타동사	타동사	よ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掴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합계	자동사 + 타동사 비율		합계	타동사+타동사 비율	
75	3/75 = 4%		75	72/75 = 96%	

위의 81개의 복합동사 ~出す 중에서 타동사인 ~出す와 결합한 자동사의 수는 겨우 4개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타동사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합한 자동사의 경우 吹き出す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연 현상적인 이동을 나타내므로, 자타 동사의 결합이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2)결합 후의 전항동사의 성질에 의한 자타성 결정 여부

전항동사가 자동사인 いぶり出す의 경우, 결합 후에 타동사로 바뀌므로 반드시 전항동사의 성질에 따라 자타성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전항동사의 성질의 행동성 여부

외부·표면·전면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상기의 81개의 동사들은 자연 현상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流れ出す、漏れだす 및 いびりだす、いぶしだす 등의 몇 개 이외에는 대부분이 동작성을 나타내는 동사라 볼 수 있

다.

(4)결합유형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립 V1 + 자립 V2의 결합유형을 보이는 いびりだす、いぶりだす、いぶしだす、乗り出す, 切り出す의 경우는 각각의 부분이 자립어의 의미를 상실하며, 하나의 단어로서의 분리가 불가능하였다.

다. 이동의 방향 및 종류

(1)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

①방출 : 동물・곤충・사람 등을 안에서 밖으로 내쫓음

いびりだす、いぶりだす、いぶしだす、追い出す、押し出す、締め出す、払い出す、叩き出す、投げ出す、払い出す、ほっぽり出す

<8>そのまま学校を休んでも、別に追い出したりしなかった。 (N.P. p.35)

그대로 학교를 쉬어도, 그다지 내쫓거나 하지는 않았다.

<9>その日、電話のベルが突然、私を眠りの底から叩き出した。 (N.P. p.10)

그 날, 전화벨이 갑자기, 나를 깊은 잠으로부터 내쫓아 버렸다.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기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는 모두 '내쫓다'의 의미이다. いぶり出す, いぶし出す의 경우 본동사의 의미가 연기를 내다, 연기가 나다의 의미로 전혀 내쫓다란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으나 후항동사 ~出す와 결합하여 짐승이나 곤충을 굴 혹은 안에서 밖으로 내몰다, 내쫓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또한, 押し出す의 경우는, 어떠한 영역(주로 일본어에서는 相撲용어로 사용됨)에서 밖으로 밀어서 내쫓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전항동사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이 후항동사 ~出す와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낸 것이다.

②화제의 발화 (입안 → 입밖)

切り出す、取り出す

<10>三十分近く歩いた頃、僕は切り出した。

「高校生?」

彼女は頷き、自分が通っている私立の共学校の名前を言った。ものすごく有名な進学校 だった。 (GO:43)

30분 가까이 걸었을 무렵, 나는 말을 꺼냈다.

"고등학생?"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다니고 있는 사립공학교의 이름을 말했다. 무척이나 유명한 진학교였다.

<11>あなたは誰ですかって最初に切り出したのは、あんたの手紙でしょ?

(러브레터:54)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당신의 편지잖아요?

③(도구(손 등) 혹은 수단(힘)의 강구) 속의 것을 ~해내다.

→ 피내다, 떠내다, 짜내다, 녹여내다, 파내다....

汲み出す、掻い出す、掻き出す、吸い出す、掬い出す、絞り出す、掴みだす

溶かしだす、にじりだす、掃き出す、ねじり出す、ほじくりだす、彫り出す、もみだす

<12>そして、その赤ん坊が乳を吸おうとして彼女の指を吸い、毒の棘を吸い出したので眠り姫は目を覚ますの。 (졸린여인:327)

그리고, 그 아기가 젖을 빨려고 해서 그녀의 손가락을 빨아, 독가시를 빨아냈기 때문에 잠자는 공주는 눈을 뜨는 거야.

<13>例えば、このアルファベッドで括られた数字のグループですが、これは語学調査班が他の情報源から掬い出して来るデータ…… 書類の日付、衣類や器具の製造年月日、といった数字と符合する。

(another heaven:524)

가령, 이 알파벳으로 묶인 숫자그룹입니다만, 이것은 어학조사반이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퍼온(퍼낸) 데이터…… 서류의 날짜, 의류와 기구의 제조년월일, 과 같은 숫자와 부합한다.

<14>彼は泥棒のように足を忍ばせてクローゼットにむかうと、暗闇の中で手に触れたスーツをつかみ出した。 (another heaven:9)

그는 도둑놈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문갑을 향하더니, 어둠 속에서 때마침 손에 닿은 슈트를 꺼냈다.

<15>机の下で拳を握りしめ、歯をギリギリかみしめて、涙をねじり出そうとしてたんだけと。 (러브레터,p.125)

책상아래에서 주먹을 꽉 지고, 이빨을 꽉 악물고, 눈물을 쥐어짜내려고 했었지만...

상기의 예는 모두 전항동사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후항의 ~出す는 전항의 뜻을 좀더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후항의 ~出す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의 해석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毒の棘を吸い出したので眠り姫は目を覚ますの。의 경우, 후항의 ~出す를 사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해석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 사물 및 사항의 이동

①선별 및 선택

選びだす、摘まみ出す、抜き出す、拾いだす、選り出す,

<16>私がそれを何だろう、とつまみ出し、指でかさこそ開いたことによって、長年の縛がゆっくりと空気中に開放されたかのように、すべてが始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 (밤과밤:99)

내가 그것을 뭘까하고 집어내서는, 손가락으로 바스락거리며 열었기 때문에, 오래된 주술이 천천히 공기 중으로 개방된 것처럼,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17>博子は書棚からスケッチブックの一冊を抜き出して机の上に広げた。

(러브레터:9)

히로코는 책장에서 스케치북 한권을 빼내어 책상 위에 펼쳤다.

<18>学者たちは、名詞、形容詞、動詞、副詞等の品詞の区別が明らかである。考えられる語彙を拾い出して、それぞれの範疇毎にリストを作った。

학자들은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등의 품사의 구별이 확실하다. 생각나는 어휘를 찾아내어, 각각의 범주마다 리스트를 만들었다.

②사항의 인도 (이끌어내다)

導き出す

<19>雨は相変わらず静かに均一に降り続いていた。夜の間に植物の芽を導き出す、優しく柔らかな雨。

「非常に、完全に，死んでいる」と僕は自分に向かって言ってみた。

(댄스댄스(하):31)

비는 변함없이 조용히 균일하게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밤사이 식물의 눈을 이끌어내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비

③ 발송・운반(보내다, 부치다)

送り出す, 運び出す

<20>手帳そのものは研究室の奥の、走査機モジュールの中に置かれていた。スコープは手帳の任意の一ページの境界面における濃淡の変化を読み取って映像を送り出すように調整されていた。 (another heaven:490)

수첩은 연구실 구석의, 주사기 모듈 속에 놓여있었다. 범위는 수첩의 임의의 1페이지 경계면에 농담의 변화를 이해하고 영상을 내보내도록 조정되어 있었다.

<21>何か言ってくるのはひととおり彼らの道具を運び出してからであろう、と南原は判断した。 (중국:88)

뭔가 말을 할 것은 얼추 그들의 도구를 옮기고 나서부터 일테지, 하고 미나미하라는 판단했다.

④반출

持ち出す、盗み出す、貸し出す、借り出す

<22>だからこっそり持ち出した。 (N.P:226)

그렇기 때문에 몰래 가지고 나왔다.

(3)사람의 이동

①유인, 강제적 이동

誘き出す、誘い出す、連れ出す、釣り出す、引きずり出す

<23>いいこと、忘れちゃだめよ、あなたたちを迷わせて、救済への道から誘い出そうとする人たちに気をつけなさい。 (졸린여인:.3)

알겠지, 잊으면 안돼. 너희들을 방황하게 하고, 구원의 길에서 꾀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해.

<24>わたしがある受刑者から聞いた話では、監房から連れ出されるときジョンが抵抗して、少佐の処刑隊があんまりひどく殴ったので、彼を引きずり出して処刑室の電気椅子に縛りつけたときには、ジョンはすでに死んでいたということです。 (졸린여인:297)

내가 어느 수감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감방에서 데리고 나갈 때 존이 저항해서, 소좌의 처형대가 너무 심하게 두들겨 팼기 때문에, 그를 억지로 끌어내서 처형실의 전기의자에 묶었을 때에는, 존은 이미 죽어있었다고 한다.

상기의 예문들은, 어떠한 유혹으로 상대를 유인하려는 의도의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동사로 본동사가 가지는 뜻의 강조형태를 띄고 있다.

②신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

起き出す、突き出す、繰り出す、蹴り出す、差し出す、投げ出す、乗り出す
踏み出す, 放り出す,

<25>こみあげてくる笑いをこらえながらあたしはベットから起き出して机に向かった。 (러브레터:.24)

치밀어 오르는 웃음을 참으면서 나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책상을 향했다.

<26>僕は膝を軽く折って体を下に沈めたあと、つま先を使って両足を思い切りに蹴り出し、オヤジの懐に飛込んでいった。人間の動体視力は横の動きには反応しやすいのだけれど、上下の動きにはうまく反応できない。

(GO:212)

나는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 몸을 아래로 내린 뒤, 발끝을 사용해서 양다리를 있는 힘껏 차내어, 아버지의 가슴으로 뛰어들었다. 인간의 동체시력은 옆의 움직임에는 반응하기 쉽다지만, 상하의 움직임에는 잘 반응할 수 없다.

<27>耳の下の下顎の部分、ボクシング用語で言う、「アンダー・ジ・イアー」を狙って、左右のフックを繰り出した。 (GO:213)

귀 아래의 아래턱부분, 복식용어로 말하는, [언더 디 이어]를 노려, 좌우 훅을 세게 내질렀다.

<28>マルコムXがそうだったように、僕も暴力は嫌いだ。でも、どうしようもない場合だってある。左の頬を打たれたら、右の頬を差し出せ? 嫌だ。頬じゃなくて急所を打ってくる奴,悪がきだった僕は何度か警察に捕まるような悪さをして、オヤジに三回ほど半殺しの目に遭っていた。だっているのだ。 (GO:21)

말콤X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폭력은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밀어라? 싫어, 뺨이 아니라 급소를 쳐오는 놈, 악동이었던 나는 몇 번인가 경찰에 잡힐 듯한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에게 세 번 정도 초죽음을 당했었다. 그런 적도 있는 것이다.

<29>苦笑しながら教授は私に受話器を差し出した。 (N.P:17)

쓴웃음을 지으면서 교수님은 나에게 수화기를 내밀었다.

<30>桜井は僕のほうに投げ出していた両足を上半身に引き寄せたあと、折り畳み、膝の前で両手を組んで座った。桜井の体がひどく小さく見えた。

(GO:177)

사쿠라이는 나를 향해 뻗고 있었던 양다리를 상반신으로 끌어당긴 뒤, 접어, 무릎 앞에서 양팔을 끼고 앉았다. 사쿠라이의 몸이 굉장히 작게 보였다.

<31>見ていると恥ずかしくなってきたので、身を乗り出し、手摺越しに下のフロアを眺めた。みんな、高い熱を発しながら、踊っていた。 (GO:33)

보고있으려니 부끄러워 졌기 때문에, 몸을 내밀어, 난간너머로 아래의 플로어를 바라보았다. 모두,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면서, 춤추고 있었다.

<32>さてお茶でも飲んでから帰ろう、と1歩を踏み出したときだった。

(N.P:97)

그런데, 차라도 마시고 나서 돌아가야지 하고 한 걸을 내딛었을 때였다.

상기의 예문은 모두 몸을 일으키고, 다리를 차고, 볼을 내밀고, 양다리를 뻗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발을 내딪는 등 모두 신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동의 예들이다. 그러나, 乗り出す의 경우 다양한 의미로 어떠한 일에 착수하다의 의미 또한 지니나, 이는 문맥 속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하겠다.

(4)내부에 있던 것의 외부에의 분출(연기, 액체, 감정...)

流れ出す、吹き出す、噴き出す、漏れだす

<33>そこにある種の輝きが生まれて、パワーが流れ出すのだと思う。

(파인애플:27)

거기 있는 씨앗의 빛이 생겨나서, 힘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4>「本当に好きだったんですよね」と僕は言った。

「俺もだよ」若い警官は煙を口と鼻から吐き出した。「まあ、俺の場合、つき前にふられたけどね」 (GO:190)

"정말 좋아했었군요" 라고 나는 말했다.

"나도 그랬어" 젊은 경관은 연기를 입과 코에서 뿜어냈다. "뭐, 내 경우엔, 사귀기 전에 차였지만"

<35>オヤジのガードが、一気にパッと開いた。それまで見えていなかった両目がハロゲンライトの光線を反射し、キラリと光った瞬間、オヤジの口から血が噴き出された。オヤジの目の光に見とれていたせいで、目を閉じるのが遅れた。

(GO:214)

아버지의 방어가 단번에 확 들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양눈이 할로겐 라이트의 광선을 반사하여 번쩍하고 빛난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아버지의 빛에 넋을 잃고 있던 탓으로 눈을 감는 것이 늦었다.

<35>ホオズキはねばついた目で私の顔を眺め、口の端から煙草の煙を吹き出した。 (중국:135)

오오즈키는 끈적거리는 눈으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5)내부에 있던 것이 외부로 드러남

はみ出す

<36>ソファは引っかかれて詰め物がはみ出している。 (졸린여인:68)

소파는 걸려서 속에 채워진 것들이 드러나 있었다.

상기와 같이 ~出す의 이동의 분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세분화 해 보았으나 해석적으로는 이동의 의미를 가지지만, 분류에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請け出す, 降り出す...)도 있었다. 또한, 吹き出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의 경우 문맥에 따른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다.

<37>ホオズキはねばついた目で私の顔を眺め、口の端から煙草の煙を吹き出した。 (중국:135)

오오즈키는 끈적거리는 눈으로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꼬리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38>涙声のくせにぷっと吹き出して彼女は言った。 (N.P:173)

울먹이는 소리 주제에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는 말했다.

위의 두 예문은 모두 吹き出す이지만, 煙を吹き出す의 경우 내부에 있던 것이 외부에의 분출로 보여지지만, ぷっと吹き出す의 경우, 역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므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분출로 볼 수는 있으나, 전후항 동사 모

두 본동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표출

가. 표출의 정의

본래 표출의 정의는 겉으로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본어 복합동사의 표출의 정의는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계로 「人を表だった場に出す」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복합동사 ~出す의 또다른 정의인 출현으로 겉으로 드러남, 원래 표출의 의미인 나타남의 의미를 구분하고자 한다.

나. 동사 결합에 의한 성질 변화

(1)자・타 동사의 결합의 제한여부

아래의 4개의 복합동사 ~出す 모두 타동사와 결합하였으므로, 표출의 의미를 나타내는 ~出す 표현에 있어 자타동사의 결합은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召し出す　　突き出す　　駆り出す　　狩り出す

(2)결합후의 전항동사의 성질에 의한 자타동성 결정여부

전후항동사가 모두 타동사이므로 자타동성 결정여부를 따질 수 없다.

(3)전항동사 성질의 행동성 여부

표출을 나타내는 아래의 4개의 동사 召す、突く、駆る、狩る 모두 부르다, 치다, 사냥하다라는 뜻의 동작성을 지닌 동사들이다.

(4)결합유형

4개의 동사 모두 부속 V1+부속V2의 형태로 각각의 부분이 자립어

의 의미를 상실하며, 하나의 단어로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39>中学に上がってすぐの頃、僕たち一年坊の何人かが、タワケ先輩の命令で小さな暴走族との喧嘩に駆り出された。民族学校の上下関係は儒教の影響でかなり厳しく、先輩の言うことは絶対的だった。 (GO:65)

중학교에 막 진학했을 무렵, 우리 1학년 녀석들 중의 몇 명인가가 타와케 선배의 명령으로 작은 폭주족과의 싸움에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민족학교의 상하관계는 유교의 영향으로 상당히 엄격해, 선배가 말하는 것은 절대적이었다.

3)출현

가. 출현의 정의

없던 것이나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거나, 가려졌다가 다시 드러나는 것을 출현이라고 하나 본고에서 정의하는 출현을 나타내는 복합동사~出す는 공간적 이동은 없고, 다만 대상이 원래부터 있었으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 변화가 주어져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동사 결합에 의한 성질 변화

(1) 자·타 동사의 결합의 제한여부

아래의 20개의 복합동사 ~出す 중 張り出す 제외한 19개가 타동사와 결합하였으므로, 출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出す 표현에 있어 자타동사의 결합은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단어	전・후항 결합 여부		단 어	전・후항 결합 여부	
	전항동사	후항동사		전항동사	후항동사
暴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さらけ出す	타동사	타동사
炙りだす	타동사	타동사	示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言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煎じ出す	타동사	타동사
映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炊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打ち出す	타동사	타동사	照ら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思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捕らえ出す	타동사	타동사
書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煮出す	타동사	타동사
切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張り出す	자동사	타동사
削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磨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探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む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합계	자동사 + 타동사 비율		합계	타동사+타동사 비율	
20	1/20 = 5%		20	19/20 = 95%	

(2) 결합후의 전항동사의 성질에 의한 자타동성 결정여부

전항동사가 자동사인 張り出すの 경우, 결합후에 타동사로 바뀌므로 반드시 전항동사의 성질에 따라 자타동성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전항동사 성질의 행동성 여부

전항동사는 동작성을 띈다고 하기 보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대부분이다.

(4) 결합유형

동사 모두 자립 V1+ 자립V2의 형태로 각각의 부분이 자립어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40>ワープロの乗った机の上には、98話目の訳が打ち出してあった。

(N.P:38)

워드프로세서가 올려진 책상위에는, 98화 째의 번역이 찍혀 있었다.

위의 예는 번역의 내용이 번역자의 머리 속에 있었을 수도 있고, 번역자가 단순히 글자로 써 두었던 것을 다시 타이프하여 옮긴 것일 수도 있으나, 번역의 내용이 타자를 친다는 행위로 인해 활자화되어 드러남을 나타낸다.

<41>わたし、そういったコンセプトの場所があるだけでも、すごく感動しちゃったから、もう食い入るようにテレビの画面を身続けたのね。そしたら、十年も一緒に暮した人と犬のお別れの様子が映し出されたの。 (GO:168)

난, 그런 컨셉의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받았기 때문에, 정말 집어삼킬 것처럼 텔레비전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10년이나 같이 산 사람과 개의 이별장면이 비춰진거야.

<42>一等船室のロビーのテレビのニュースが東京兜町の証券取引の光景を映し出している。 (먼북:296)

일등선실 로비의 텔레비전 뉴스가 동경 카부토 거리의 증권거래 광경을 비춰주고 있다.

상기의 두 예문 역시, 텔레비전의 화면은 그대로 있으나 카메라의 이동, 채널의 이동으로 인해 현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청자의 눈에 또 다른 장면이 비추어진 것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작주의 이동 등은 없다.

<43>鼻をさするのをやめた加藤が、思い出したように言った。

A :「 今日、俺の誕生日なんだよ」

B :「何もやらねえぞ」 (GO:25)

코를 만지기를 그만둔 카토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

A: "오늘, 내 생일이야."

B: "아무것도 안 줄 거야"

<44>世間に隠している家族の秘密を探りだすんだ。 (졸린여인:255)

세상에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을 알아낼 거야.

<45>正直よりももっと意志のある正直さを人がさらけ出すところを、自分も含めてこの ところずいぶん見た。 (예감:159)

정직보다도 좀더 의지 있는 정직함을 사람이 드러내는 것을, 나도 포함해서 요즘 꽤 많이 보았다.

상기의 세 예문 모두 생각, 사람에 대한 이미지, 비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것들이 자신의 내재된 기억 속에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떠올리거나 알아내려는 노력이 가해지므로 인해 드러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한 행위의 첨가나, 공간의 이동은 필요하지 않다.

<46>それほど、強くない、透明な陽が、新しい家屋の塗り替えられたベージュの壁を照らし出していた。 (예감:.30)

그다지, 강하지 않은, 투명한 햇살이, 새 집의 새로 칠한 베이지색 벽을 비추고 있다.

<47>約束の場所は大きな石が川に張り出し、自然の船着き場を形成していた。 (중국:41)

약속장소는 커다란 돌이 강으로 내뻗어져, 자연 선착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48>僕は中学三年に上がってすぐ、日本の高校を受験することを、教師たちに宣言した。『開校以来のバカ』がわけの分からないことを言い出した、と一笑に付されるかと思ったのだけれど、学校側は予想外の恐慌に陥った。

(GO:70)

나는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자 곧, 일본 고등학교로 시험 칠 것임을, 교사들에게 선언했다. [개교이래의 바보]가 영문모를 소리를 꺼냈다, 고 문제삼지 않고 웃어 넘겨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학교 측은 예상외의 공황에 빠졌다.

상기의 예문의 경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얘기를 불쑥 꺼냄으로 인해 그 이야기를 들은 청자에게 당혹감을 주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단순히 言う, 혹은 話す를 사용하지 않고 言い出す를 사용했다는 것은 화자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 방식이 청자에게 있어서는 급작스러운 일일지는 모르나, 화자는 충분히 사전에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단지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49>すごくいい匂いがしそうなわきの下。セクシーに乱れる髪。彼は女の裸の背中を撫でている。カメラがくるりと回りこむように移動してその女の顔を写し出す。

(댄스댄스(상):174)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날 것 같은 겨드랑이 아래. 섹시하게 흐트러진머리. 그는 여자의 벗은 등을 만지고 있다. 카메라가 뱅그르르 돌아갈 듯이 이동해 그 여자의 얼굴을 비춰낸다.

4) 창출

가. 창출의 정의

처음으로 이루어져 생긴 것 혹은 만들거나 지어내는 것을 창출이라고 하며, 본고에서는 창출을 나타내는 복합동사 ~出す의 정의를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의 상태에서 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창출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들 복합동사의 전항동사에는 그 방법을 나타내거나, 창작활동, 가공작업에 관한 것이 많다.

나. 동사 결합에 의한 성질 변화

(1)자・타 동사의 결합의 제한여부

아래의 16개의 복합동사 ~出す 모두 타동사와 결합하였으므로, 창출의 의미를 나타내는 ~出す 표현에 있어 자타동사의 결합은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단어	전・후항 결합 여부		단 어	전・후항 결합 여부	
	전항동사	후항동사		전항동사	후항동사
編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刻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産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こしらえ出す	타동사	타동사
生み出す	타동사	타동사	刷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描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染め出す	타동사	타동사
織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裁ち出す	타동사	타동사
稼ぎ出す	타동사	타동사	作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かも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ひねく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考え出す	타동사	타동사	ひね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합계	자동사 + 타동사 비율		합계	타동사+타동사 비율	
16	0/16 = 0%		16	16/16 = 100%	

(2)결합후의 전항동사의 성질에 의한 자타동성 결정여부

전항동사가 모두 타동사이므로 자타동성의 결정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3)전항동사 성질의 행동성 여부

전항동사는 짜다, 돈벌다, 만들다 등의 동작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4)결합유형

동사 모두 자립V1+ 자립V2의 형태로 각각의 부분이 자립어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50>日本における真のアートとは、ああいう人柄が生み出すのかもしれない。

(파인애플:126)

일본에서의 진실한 예술이란, 그러한 인품이 낳는 것일지도 모른다.

<51>「打ち合うのは確かに上半身だ。でも、強いパンチは強いフットワークから生み出される。それに、土台の愕い家は簡単にぶっ壊れる。
だから、走れ」 (GO:59)

"치고받는 것은 확실히 상반신이다. 그래도, 강한 펀치는 강한 풋워크에서부터 태어난다. 게다가, 근본이 나쁜 집은 간단히 망한다 그러니까, 달려라."

<52>父の家だろうが，ネパールだろうが，実感のなさはいっしょだった。それはカギっ子の淋しい生活が産み出した「生活の知恵」だった。 (うたかた:19)

아버지 집인지, 네팔인지, 실감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맞벌이 집안의 아이의 외로운 생활이 낳은 '생활의 지혜'였다.

상기의 예문의 예술활동, 강한펀치, 생활의 지혜는 경험과 시간의 흐름에 의해 체득되어지는 것으로 본래는 없었던 것들이 노력 등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53>周囲の岩に太陽の光はぎらぎらと反射し、底無しの黒い穴かとまがう影刃物で切ったような先鋭な輪郭で尖った岩石の表面に無数の奇怪な紋様を描き出していた。 (another heaven:254)

주위 바위에 태양의 빛줄기는 번쩍거리며 반사되어, 끝이 없는 까만 구멍인가하고 착각하는 그림자 칼로 자른 듯한 끝이 날카로운 윤곽으로 뾰족한 바윗돌표면에 무수한 신기한 문양을 그려내고 있었다.

<54>民族学校は各種学校扱いで国から助成金が出ないから、授業料なども高いのだけれど、お母さんは一生懸命に働いて授業料を稼ぎ出した。 민족학교는 각종학교 취급이어서 나라로부터 조성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 등도 비싼 것이지만, 어머니는 열심히 일해서 수업료를 벌기 시작했다. (GO:73)

우리말 해석으로는 개시의 ~出す에 가까우나, 稼ぎ出す는 노동의 행위의 대가로서 돈이라는 부산물이 생겨나므로 창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55>どうしてクリスマスのときだけこれほど飛躍的に乞食の数が増加するのか、こういうパートタイムの乞食は普段は一体何で生計を立てているのだろうか、という風に考え出すと、謎が謎を呼んで頭が混乱してくる(먼북:327)

어째서 크리스마스 때만 이 정도로 비약적으로 거지의 수가 증가하는 걸까. 이런 파트타이머 거지는 보통은 도대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자,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를 불러 머리가 혼란스러워 졌다.

모두 생각해내다로 해석되는 思い出す와 考え出す를 思い出는 출현에 포함시키고 考え出す를 창출로서 분류한 것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思い出す의 경우 본래 자신의 머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기억 등을 반복하여 재생한다는 것에 가깝다고 여겨지고, 考え出す의 경우는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방법, 방안으로서 원래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으나, 주어진 질문 혹은 답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됨으로 인해 생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말식 해석은 비록 같으나,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56>ドアがまたするすると音もなく開いた。僕はぼんやりと考え事をしながら外に出た。羊男、彼はエジプト時代から存在したのだろうか?それともこれはみんな僕が頭の中で作り出した意味のない幻想に過ぎないのだろうか?僕はポケットに手を突っ込んだまま暗闇の中に立ってそんなことを考えていた。

(댄스댄스:129)

문이 또다시 스르륵 하고 소리도 없이 열렸다. 나는 멍하게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이집트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모두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의미 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채 어둠 속에 서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57>奇妙に単調な音を作り出していた。 (회전목마:41)

기묘하게 단조로운 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作り出す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산물이 드러나는 창작활동 이외에 정신적 창작의 경우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58>驚愕はせいぜい半秒のことだったろう。早くも彼の頭の中のコンピュータは答えをはじき出していた。 (another heaven:335)

경악은 기껏해야 반 초간이었을 테지. 빠르게 그의 머릿속 컴퓨터는 대답을 산출하고 있었다.

5)발견

가. 발견의 정의

남이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물을 맨 먼저 찾아내는 발견이라고 하지만 본고의 발견을 나타내는 ~出す의 정의로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했던 것을 구하거나, 그 존재를 확실케 하는 것으로 자각적인 의미의 발견이 주가 된다.

나. 동사 결합에 의한 성질 변화

(1)자・타 동사의 결합의 제한여부

아래의 10개의 복합동사 ~出す 모두 타동사와 결합하였으므로, 출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出す 표현에 있어 자타동사의 결합은 제한적이라고 하겠다.

단어	전・후항 결합 여부		단 어	전・후항 결합 여부	
	전항동사	후항동사		전항동사	후항동사
洗い出す	타동사	타동사	調べ出す	타동사	타동사
嗅ぎ出す	타동사	타동사	尋ね出す	타동사	타동사
聞き出す	타동사	타동사	見出す	타동사	타동사
捜し出す	타동사	타동사	見つけ出す	타동사	타동사
探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割り出す	타동사	타동사
합계	자동사 + 타동사 비율		합계	타동사+타동사 비율	
10	0/10 = 0%		10	10/10 = 100%	

(2) 결합후의 전항동사의 성질에 의한 자타동성 결정여부

전항동사가 모두 타동사이므로 자타동성의 결정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

(3) 전항동사 성질의 행동성 여부

전항동사는 찾다, 조사하다, 씻다 등 동작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4) 결합유형

동사 모두 보조 V1+ 보조V2의 형태로 각각의 부분이 자립어의 의미를 상실하며, 하나의 단어로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60>ストーンが検死官のマーステンから聞き出せたのは、被害者たちの年齢が十四歳から十七歳のあいだであり、両人ともニニ口径の拳銃で撃た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けだった。 (졸린여인:59)

스톤이 검사관인 마스튼에게서 캐물어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의 연령이 14세부터 17세 사이이고, 두 사람 다 22구경의 권총에 맞았었다. 라는 것 뿐 이었다.

<61>それから僕らは階段を三階まで上がった。余計なもののついていないシンプルな鉄筋のアパートだった。306という番号のついたドアの前までくると、彼女はバッグを開け、中に手を突っ込んでキイを探し出した。そして僕に向かってどことなく不器用そうに微笑んで、ありがとう、楽しかったわと言った。

(댄스댄스(상):97)

그리고나서 우리들은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갔다. 불필요한 것이 딸려 있지 않은 심플한 철근 아파트였다. 306이란 번호가 붙은 문 앞까지 오자, 그녀는 가방을 열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키를 찾아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어딘지 모르게 서투른 듯한 미소를 짓고, 고마워, 즐거웠어 라고 말했다.

<62>消えてしまう前に捜し出さねば、という気にさせるあの横顔。(N.P:113)

사라져 버리기 전에 찾아내지 않으면 안돼, 란 마음이 들게 하는 저 옆얼굴.

<63>昔、学校でよくやった。クラスが新しくなったとき、順番に教室の前に出て、みんなの前で自分についていろいろと喋る。僕はあれが本当に苦手だった。いや、苦手というだけではない。僕はそのような行為の中に何の意味を見出すこともできなかったのだ。僕が僕自身についていったい何を知っているだろう? (Go:285)

옛날, 학교에서 자주 했었다. 새로운 반이 되었을 때, 순서대로 교실 앞에 서서, 모두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한다. 나는 그것이 정말로 서툴렀다. 아니, 서투를 뿐만이 아니다. 나는 그런 행위 속에 무언가 의미를 찾아낼 수도 없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64>水泳の話と両親の離婚の話とのあいだに少くとも僕は明確な脈絡を見出すことはできそうにない。 (회전목마:20)

수영 이야기와 부모님 이혼이야기 사이에 적어도 나는 명백한 맥락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65>こんなことをしたやつを見つけ出して! きっと見つけ出すと約束して、その怪物を! (졸린여인:p.78)

이런 짓을 한 놈을 찾아내줘!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약속해줘, 그 괴물을!

<66>遠からず、血液、ならびに体組織中の老廃物および毒素の蓄積の速度が

計算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が、その結果から、自然な状態におけるチャーリーの睡眠時間と起きている時間を割り出せるでしょう。もし、その方法によって一日の長さがわかれば、他の数字もたちどころに量的に理解できるはずです」 (중국:369)

머지않아, 혈액, 및 체조직중의 노폐물 등 독소의 축적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에서부터 자연적인 상태에 걸친 찰리의 수면시간과 깨어있을 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겠지요. 만일, 그 방법에 의해 하루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다른 숫자도 즉시 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의 용례, 聞き出す、探し出す、見出す、見つけ出す, 割り出すは 동작주가 직접 전항동사의 행위즉, 묻거나, 찾거나, 발견하거나, 계산하거나하지 않으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으므로, 동작주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6)개시

동작・작용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항동사는 '개시-계속-종료'를 나타내는 계속동사이다. 단, 순간동사라도 주체가 복수이거나, 동작・작용이 반복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많은 동사에 접속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부만 적어두기로 한다.

歩き出す	言い出す	歌い出す	動き出す
書き出す	駆け出す	咲き出す	食べ出す
近寄り出す	使い出す	注ぎ出す	泣き出す
走り出す	冷え出す	降り出す	ほえ出す
笑い出す			

위와 같이 「~出す」의 意味를 살펴 보았지만 ,「~始める」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외국인의 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해 보았으나 姫野씨도 말하고 있듯이 실제로는 「~出す」가 「외부로의 이동」인지 「개시」인지 구별이 되기 어려운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문장 속에서 문맥을 살펴보면서 구별해 내야 하겠다.

3.3 개시를 나타내는「~出す」 와 「~始める」의 비교

「~出す」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개시를 나타내는「~出す」를「~始める」와 비교하여 그 의미용법을 구분하고자 한다.

국면동사인 「~出す」「~始める」형태는 과정성의 의미 특징을 가진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동작현상의 시작의 국면을 나타낸다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전항동사의 하위류의 의미특징에 의해서 결합의 가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이 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바꿔 쓰면 부자연스러운 경우도 많다. 이것은 「~出す」「~始める」형의 개시의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 <67>途中、何度か道に迷いながらも、小学校に辿り着いた。桜井が跨がって得意な顔をしていたレール式の鉄扉の前に立ち、ぼんやりしていると、雨が落ち始めた。しばらくのあいだ、鉄扉にもたれながら、雨に打たれた。ふと、オヤジとの最後のトレーニングのことを思い出した。 (댄스댄스:139)

상기의 예문의 「落ち始めた」는 전항동사가 가리키는 「雨が落ちる」라고 하는 상황과 동작의 개시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落ち出した」로

바꾸어도 문장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出す」「~始める」형과 결합하는 전항동사의 어휘적 의미는 장단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이와 같은 동사는 문맥의 도움이 없더라도 항상 동작·변화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사적 수식성분이 문장 속에서 「~出す」「~始める」형과 함께 나타나면서, 이들 개시의 방식을 수식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부사적 수식성분과의 共起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始める」형은 점차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점진성의 수식성분 및 돌발성의 수식성분이 共起할 수 있는데 비해,「~出す」형은 돌발성의 수식성분과의 共起가 매우 눈에 띈다.

3.3.1 「~出す」「~始める」형과 결합하는 전항동사에 대해서

우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出す」「~始める」형과 결합하고, 다양한 의미를 띄는가를 분석한다. 수집한 용례「~出す」91개의 전항동사 중, 출현률 상위 10위와 「~始める」29개의 전항동사 중 출현률 상위 10위를 들면 아래와 같이된다.

표2] 출현률 상위 10위「～出す」표

	～出す			～ 始める	
1	思う	180例	1	歩く	30例
2	歩く	80例	2	降る	25例
3	取る	57例	3	感じる	18例
4	差す	35例	4	使う	16例
5	飛ぶ	30例	5	考える	15例
6	乗る	28例	5	変わる	15例
7	放る	27例	7	歌う	13例
8	呼ぶ	27例	7	話す	13例
9	言う	24例	9	読む	12例
10	引っ張る	21例	10	付き合う	10例
10	生む	21例			

「～出す」형의 상위10위를 점하는 것은 사고활동에 해당하는 「思う」가 가장 많고, 공간적인 이동에 해당하는「歩く」의 형태가 가장 많이 보인다. 대부분의 단어들이 이동의 방법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며, 언어활동에 해당하는 「言う」의 경우도 많았다.

「～始める」형의 상위 10위를 점하는 것 역시, 인간이 주체인 경우, 자기활동으로서의 동작·변화에 해당하는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표현「歩く」가 가장 많고,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降る」, 심리적 활동에 해당하는 「感じる」「考える」등의 단어가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복합동사를 형성하는 전항동사와 후항동사의 자, 타동사의 구성을 보면,

	전항동사	후항동사
(1)	타 동 사	자 동 사
(2)	자 동 사	자 동 사

위와 같은 구성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항동사	후항동사
(3)	자 동 사	타 동 사
(4)	타 동 사	자 동 사

와 같은 구성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出す는 (1)과 (3)에 해당된다. 단순동사인 ~出す는 타동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항동사도 타동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동사+出す의 예는 타동사+出す와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본고의 용례에서는 3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으나, 이것이 자동사+出す의 예를 모두 다 든 것은 아니다. 자동사 +出す(타동사)는 복합동사의 자동사의 자타구성의 일반적인 경향인 자동사 + 자동사인 경우는 出す 대신에 出る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出す는 타동사이지만 복합동사의 후항이 되면 자신의 문법적 범주를 잃고, 자동사가 되는 경우도 나타난다. 보통은

전항동사	후항동사	복합동사
타 동 사	타 동 사	타동사
聞く	出す	聞き出す
炊く	出す	炊き出す
叩く	出す	叩き出す
引っ張る	出す	引っ張り出す

와 같이 된다. 그러나,

전항동사	후항동사	복합동사
자 동 사	타 동 사	자동사
流れる	出す	流れ出す
飛ぶ	出す	飛び出す

처럼 전항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는 복합동사전체는 자동사가 된다.

이와 같이, 出す는 전항동사의 자타에 의해서 복합동사 전체가 자동사가 되거나, 타동사가 되거나 한다. 즉 자신의 문법적 범주를 잃어버린다. 그런 경우는 ~込む라든지 ~つける의 복합동사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에 비해서 완수의 의미인 ~あがる는 전항동사에 타동사가 오더라도 타동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出す가 자신의 문법적 범주를 상실하고 전항동사에 의해 자타가 결정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하나의 단순동사가 자·타 양면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出す의 경우도 같다.

<68> 管の中から糸を繰り出す。 (国語)

(타동사)

<69> 実はね，コンや当り君を誘って繰り出そうと思っていたんだ。(国語)

(자동사)

<70> 舞台中央へ役者は迫り出す。 (国語)

(타동사)

<71> 次第に現実世界に迫り出してくる。 (国語)

(자동사)

또한, 전항동사가 자동사라도 자동사 타동사 형태가 모두 나오는 경우도 있다.

<72> いざ文壇に乗り出そうとして.... (国語)

(자동사)

<73> 窓から上半身を乗り出していた例の娘 (国語)

(타동사)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出す의 金田一春彦씨가 国語動詞の一分類에서 종래의 일본어 동사의 분류가 자동사, 타동사, 의지동사, 무의지동사, 또는 완전동사와 불완전동사 등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그와 같은 경우와는 또다른 분류, 「시간적으로 본 동작·작용의 종류에 의한 분류」 바꿔 말하면, 「아스펙트의 관점에서 본 동사의 분류」에 비추어 ～出す를 살펴보면, ～出す는 계속동사에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読み出す, (2)映し出す, (3)叩き出す, (4)食べ出す 의 네 가지 복합동사의 전항동사는 모두 계속동사이다. (1)은 読む라고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든가, 움직이도록 한다 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읽는다고 하는 동작을 시작한다고 하는 아스펙트의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용법이다. (2)의 映し出す는 무언가를 비추어 나타낸다와 같은 의미가 되고 표출에 속한다. 물론, 비추기 시작한다고 하는 아스펙트적으로도 취급할 수 잇다. (3)과 같은 叩き出す たたいて追い出す로 이동에 속한다. (4)의 食べ出す는 먹는 동작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미로는 食べ出す보다 食べ始める의 쪽이 일반적이다. 또한, 出す는 일반적으로는 순간동사에 붙기 어렵다. 그러나, 접속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단번에 부자가 된 사람에게

<74> 彼は過去の苦労をだんだん忘れ出した。 (国語)

의 忘れる는 순간동사이다. 여기에 出す가 붙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전의 고생을 한 개 두 개 잊어 간다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75> 学生たちは、一人二人倒れ出した。 (国語)

의 倒れる도 순간동사이지만, 폭염 속에서 줄지어 있던 학생들이 한명 두명 넘어지기 시작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出す의 전항동사에 계속동사는 물론, 순간동사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시의 뜻을 가지는 전항동사의 수는 좀 더 많아지고, 다른 의미보다 쉽게 느껴지는 것도 그렇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出す」「～始める」형을 용례를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하고, 우선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의미차이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寺村(1984)는 자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始める」と「～出す」は多くの同一の動詞につき意味もほとんど変わらない(雨が 降り始めた：降り出した)が「～出す」のほうが自然現像を表す色彩がより強い"

森田良行(1977)는

"「出す」は無の状態現れていない状態のものがおのずと顕在化し動詞・状態の変化として形をなすという気分がつよい「開始」よりは「新たな事態の成立」の意識が強いだから人間の行為に使われても意志性がない「～はじめる」は継続する作用・動作の開始意識が強い"

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

a.彼はいやいや歩き出した。

b.あのテレビ番組を見だしてから土曜の夜が楽しみになった。

c.*そろそろ本を読み出そうか。(cf.読み始めようか)

위의 예에서 a 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서술하는 경우이고 , b 는 자신의 행위일지라도 결과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나, 자기의 의지적 판단인 c는 용인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

또한, 姫野昌子(1999)는 자연성과 돌발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 (怒り出す？怒り始める)와 예측하기 힘든 것을 강조하는 경우 (今になって立ち退かないなどと言い出されては困ります), 그리고 음의 자연발생을 나타내는 경우 (電話が鳴り出す ？鳴り始める) 와 자연현상의 경우(今にも雨が降り出しそうだ：？雨が降り始めそうだ)는 「～出す」 쪽이 적당하다. 그러나 의지적표현(？早くやり出せ：早くやり始めろ)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형태상의 제한으로는 전항동사에 「出す始める」가 오는 경우는 동음반복을 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音を出し始める＊音をだし出す)

今井忍氏는 「～出す」의 의미용법 중 개시를 나타내는 용법 즉, 「～始める」와 교환가능한 것을 「～出すA 」라 하고 ,이것은 명령・의지의 문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

a.すぐに本を読み始めなさい?すぐに本を読み出しなさい

b.早く食べ始めたい?早く食べ出したい

또한, 「～出す」가 화자가 지각 불가능한 사태를 나타내는 문맥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데 ,이것은 「～出すA 」가 단순히 起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話者によって結果が知覚可能な事態の生起」라고 설명하면서, 姫野昌子(1977)의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해결책으로 , Lakoff 와 Langacker 가 제창한 인지의미론의 이미지 스키마 (Image Schema)를 이용하여 「出る」「出す」「～出すA 」의 用法을 説明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出す」와 「～始める」의 용법에 한 선행논문을 살펴 본 結果,「～出す」와 「～始める」의 의미용법의 차이를 寺村씨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森田씨는 의지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姫野昌子씨는 자연성과 돌발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出す」쪽이 「～始める」보다 적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今井忍씨는 화자가 지각 불가능한 사태, 즉 화자가 그 현장에서 사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始める」쪽이 더 잘 어울린다고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용례를 통해 살펴보면,

<76>おばさんと別れたのはお昼頃だったんだけど、夕方ぐらいに雨が降り出したの。ものすごく強い雨が。そしたら、ジッと前を見つめてた犬が顔を上げて、雨が落ちてくる空を見上げたと思ったら、いきなり、ワオーン、て鳴き始めたのね。 (GO:168)

고모와 헤어진 것은 점심 무렵이었는데, 저녁무렵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굉장히 세찬 비가. 그러자 가만이 앞을 바라보고 있던 개가 얼굴을 들고 비가 떨어져 내려오는 하늘을 올려 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멍하고 짖기 시작한거지.

위의 용례는 모두 出す、始める를 바꾸어 쓸 수 있다. 단지, 화자가 개가 하늘을 올려볼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반대로 자신을 향해 짖기시작한 것은 화자가 지각 불가능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일단 그 현장에 있었으므로 ～始める보다는 ～出す 쪽을 쓰는 편이 낫다고도 볼 수 있으나, 크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77>ふたりが出会うとほら、古代の伝説みたいに、運命が動き出すって信じてよ、きっと。 (N.P:38)

두 사람이 만나면, 이봐, 고대의 전설 같이,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할거라고 믿고 있어요, 분명히.

운명의 흐름과 같은 추상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경우 ~出すが 자연스럽다. 또한, 일반적으로 운명의 변화라고 하면 천천히 변한다기 보다 갑작스러운 계기 혹은 상황으로 인해 급변하는 상황을 주로 운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 예문의 경우도 두 사람이 만난다는 가정 즉 그 만남의 돌발성에 의해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므로 ~出す쪽이 자연스럽다.

<78>酒に酔ったのか、ふと梶親父が鼻歌を歌い出した。 (러브레터:186)
술에 취한 것일까, 문득 카지 아저씨가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79>彼は顔を歪めながら僅かに残された体力を意のままにならぬ両腿に集中した。早くも心臓は再び躍りだし、肺は激しく波打っていた。懸命の努力も空しく、彼は背中から岩壁にくずおれた。 (GO:90)
그는 얼굴을 일그리면서 약간 남겨진 체력을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양허벅지에 집중했다. 벌써 심장은 또다시 뛰기 시작하고, 폐는 격렬하게 울렁거리고 있었다. 필사적인 노력도 허무하게, 그는 등부터 바위벽에 퍽석 주저앉았다.

<80>私と顔の位置が並んだとたん、萃は泣き出した。 (N.P:98)
나와 얼굴위치가 마주친 순간, 스이는 울기 시작했다.

とたん이라는 부사가 나왔을 경우 ~出す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始める에 비해 ~出す가 돌발성, 비예측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81>家の人の話によると、テレビで手配写真を見て急にこの男が店にきたって

騒ぎ出したそうで。 (another heaven:371)

집안의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텔레비전에서 수배사진을 보고 갑자기 이 남자가 가게에 왔다고 떠들기 시작한 것 같다.

<82>……出も、その沈黙の密度が……今にも、しゃべり出しそうな、迷っているような、そういうね。 (밤과밤:130)

……이즈루도, 그 침묵의 밀도가 ……지금이라도, 떠들기 시작할 듯한,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런.

<83>加藤はいまにも泣き出しそうな顔を作り、「差別しないでくれよ。うちの親父も必死に生きてんだよ。それに、うちの親父、おまえのことすげえ気に入ってたぜ。いつも、あいつはすごい男になる、って言ってる」 (GO:26)

카토는 지금이라도 울기 시작할 것 같은 얼굴을 만들며 "차별하지 말아줘. 우리아버지도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야. 게다가 우리아버지, 널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구. 항상, 그 녀석은 굉장한 남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해"

<84>a.そういっているそばから、早漱の手の中で電話が鳴り出した。

b.そういっているそばから、早漱の手の中で電話が鳴り始めた。

(another heaven:374)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야세의 손안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85>うん、ちょっと逃げ出してくる。

逃げ始めてくる(?)

しかたなく二人は歩き出した。 (러브레터:87)

응, 잠깐, 도망갔다 올께.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

도망갔다 오겠다는 문장 자체만으로는 화자의 의지가 들어 있으므로 ~始める를 사용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도망을 친다는 행위 자체는 돌발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始める를 사용하면 어색하다.

<86>ドアが開き、嵐はそう言ってさっと電車を降りた。走り出す電車から、ホームを大またで歩いてゆく彼を残像のように遠く見送って、がっかりしていた。

そう思った瞬間ピストルが鳴って、同時にあいつ走り出したの。

(러브레터:146)

문이 열리고, 아라시는 그렇게 말하고 휭하니 전차에서 내렸다. 달리기 시작하는 전차에서, 홈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를 잔상처럼 멀리 배웅하고, 실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권총이 울리고, 동시에 녀석은 달리기 시작한거야.

<87>僕がこの店に入ったのはただ単にその近くを歩いていたら突然雨が降り出したからだった。 (회전목마:126)

내가 이 가게에 들어온 것은 그저 단순히 그 근처를 걷고 있었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88>そしてすべてがもと通りに回り出すまでにそれほどの時間はかからない。

(예감:171)

그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 그다지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89>ついにこらえきれなくなったように、彼は背中をのけぞらせて笑い出した。

(another heaven:180)

마침내 참을 수 없게 된 것처럼, 그는 등을 젖히면서 웃기 시작했다.

개시의 국면을 나타내는 「~始める」,「~出す」의 형태를 통해 이들과 결합하는 전항동사의 의미특징과 문중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 각각의 의미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으로서는 우선, ~始める형과 결합하는 전항동사에는 인간이 주체인 경우, 자기운동으로서의 동작, 변화에 해당하는 변화를 나타내는 「出る」「持つ」등이 이어진다. 한편, 「~出す」형의 경우는, 사고활동에 해당하는 「思う」, 공간적인 이동에 해당하는 「歩く」,언어활동에 해당하는 「言う」에 이어져, 인간에 생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泣く」「笑う」등의 어와 결합하여, 개시의 국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람이 주체이외인 경우는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鳴る」 「降る」 「照らす」 등의 단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일본어 복합동사, 특히 「~出す」가 결합된 복합동사의 의미를 일본어 속에서의 의미분류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복합동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복합동사를 결합요소의 어구성과 의미관계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연구대상인 일본어 복합동사「~出す」를 그 의미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제일 먼저 「~出す」가 가진 의미를 단독으로 사용될 때와 복합동사로 사용될 때로 나누어 사전에서 조사하였는데,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의미분류를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姫野昌子氏는 「~出す」의 의미용법으로「外部、前面、表面への移動」를 다시 주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穴の中から外へ這い出す。家を飛び出す。)와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타동사 (山から家へ材木を運び出す。)로 나누어, 자동사에 대해서는「~出す」가 타동사로서의 성질을 잃고, 복합동사 전체가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出る」,「出す」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姫野昌子씨는 다시 전항동사에 외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出す」가 전항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전항동사가 「出す」를 수식하여 이동의 방법과 양상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의 복합동사 「~出す」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이며 본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용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또한, 타동사에 대해서는 전항동사의 수식관계에 의해, 방법(~することによって出す)과, 상태(~して状態で出す)、目的(~することすなわち外界に出す), 분석불가능(差し出す、乗り出す)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表だった場にだす」에는

당사자의 의지와는 무관계로, [人を表だった場にだす]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상이 「表だった場に現れることに」에 중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どこから」라고 하는 기점은 생략되며, 여기에는 「召し出す」「突き出す」「殴り出す」「狩り出す」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화를 대상을 외부나 표면으로 출현시켜, 남의 눈에 띄게 하는 것고, 대상의 공간적 이동은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항동사의 의미 특징에 의해「顕現・創出・発見」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姫野씨가 '「外部への移動」の意を含まぬもの' 예로「飛び出す」「這い出す」등을 들고있는데 대해 과연 이 용어가 적합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이유로는 첫째, 고찰의 대상 자체가 전항동사에 '外部、前面、表面への移動'을 나타내는 복합동사인데 그 단어 중에 외부동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위의 「飛び出す」는 '위로 날아서 어디론가 간다'는 이동의 뜻이 있고, 「這い出す」에도 '기어서 결국은 어디로든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移動の方法・様相を示すもの」라는 용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出す」의 의미용법을 좀 더 세분화하여「외부, 전면, 표면으로의「이동」,「표출」,「출현」,「창출」,「발견」,「개시」의 6가지 의미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出す」의 의미용법은 통어적복합동사의 조어율 1위에서도 드러나듯이 주로 개시의 의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그 외에 좀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선행연구와 용례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또한, 6가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거나, 2가지 이상의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도 몇 개 있었다. 이는 어휘적 복합동사로서의 ~出

す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분류의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돌리고 싶다. 또한, 개시의 의미의 「~出す」와 「~始める」를 아스펙트적 관점이 아닌 돌발성과 자각성의 관점에서 논한 선행연구의 시점을 용례를 통해 살펴보고 규명하고자 했으며, 특히 이들 개시를 나타내는 복합동사와 결합하는 전항동사의 성질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두 동사의 사용에 있어 좀 더 명확함을 기하는 데 기준을 삼고자 하였다.

参考文献

<参考辞典>

国語大辞典(1988), (新装版),小学館.

日本国語大辞典(昭和54),日本大辞典刊行会,小学館.

<参考文献>

武部良明(1953)「複合動詞における補助動詞的要素について」,『金田一博士古稀記念言語.民俗論叢』,三省堂.

長嶋善郎(1976)「複合動詞の構造」,『日本語講座第4巻日本語の語彙と表現』,大修館書店.

関一雄(1977)『国語複合動詞の研究』,笠間書院.

森田良行(1977)『基礎日本語-意味使方-』,角川書店.

森田良行(1978)「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講座日本語教育』14,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최현배 (1978)『우리말본 』,정음사

오만(1979)「現代韓国語複合動詞-나다/내다의形態的統辞的意味的考察-」,『言語学』4号, 서울대학 .

양순혜(1982)「複合動詞を中心に」,『現代韓日両国語의対照比較(II)』,日語日文学研究第3, 輯韓国日語日文学会.

구현정 (1984)「내다의 意味研究」,『紫霞語文論集』第3 輯.

山本清隆(1984)「複合動詞の格支配」,『都大論究』.

조천웅(1984)「構成하는下接動詞에日本語의複合動詞에関한一考察」(内・外・上・下向移動의方向性이強한下接動詞를中心으로)中央大学校教育大学院.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くろしお.

石井正彦(1983)「現代複合動詞の語構造分析における一観点」,『日本語学』,明治書院.

新美和昭・他編(1987)「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ズ 4 」,『複合動詞』,荒竹出版社.

石井正彦(1988)「辞書に載る複合動詞・載らない複合動詞」,『日本語学』.

玉村文郎(1988)「複合語意味」,『日本語学』7- 5.

若林武史(1989)「現代日本語の複合動詞の形態と意味V- V 構造の複合動詞の意味構造」,『京都教育大学国文学会誌』23.

南場尚子(1991)「複合動詞後項の位置づけ」,『同志社国文学』34.

今井忍(1993)「複合動詞後項の多様性に対する認知意味論によるアプロチ「～出す」の起動の意味を中心にして」,『言語学研究』2, 京都大学.

中村その子(1993)「現代語複合動詞の多様性比喩との関連において」,『関東学院大学文学部紀要』66.

林翠芳(1993)「日本語複合動詞研究の現在」『同志社国文学』37

山梨正明(1995)「文法化・意味変化とカテゴリの分化」,『認知文法論』,ひつじ.

최영철(1995)『韓国言語文学』,「韓国語와日本語의対照研究」,韓国言語文学会第35 輯.

影山太郎(1996)『動詞意味論-言語と認知の接点-』,くろしお.

후미자와후미또(1996)「複合動詞의形態論的分析」,『現代韓国語의形態論研究』,啓明大学校出版部.

고영진 (1997)「韓国語의 文法化過程」,국학자료원 .

斎藤論明(1997「語構成」,『日本語の語彙』,桜楓社.

이경수(1997)「日・韓両語の複合動詞に関する対照研究-文法的複合動詞を中心に-」,博士論文,広島大学.

姫野昌子(1999)「複合動詞」,『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